

자동차 5사, 감산체제 본격 돌입

현대, 울산 3공장 제외 전 공장 감산 ... 르노삼성은 주 4일 근무

세계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5대 자동차 생산기업이 12월1일부터 본격적인 감산에 돌입했다.

자동차 5사는 공장 가동중단, 정상근무 단축, 주말 특근 및 잔업 중단, 생산직 전환배치 등의 방식으로 생산량 줄이기에 들어갔다.

현대자동차는 주력 공장인 울산공장의 2공장(싼타페·베라크루즈 생산)과 4공장(스타렉스와 포터)이 11월22일과 11월23일 주말 특근부터 중단한데 이어 1공장(베르나와 클릭)과 5공장(제네시스·투산)이 12월1일부터 주말 특근을 중단하기로 했다.

특히, 2공장은 다목적 레저용 자동차 SUV 판매가 줄어들면서 12월1일부터 주말 특근 및 잔업 뿐만 아니라 정상근무 시간도 4시간으로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4시간은 교육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아산공장(그랜저TG.쏘나타)도 11월 말 특근부터 중단하기 시작했고 전주공장(버스 5톤이상 트럭)도 12월 첫째 주말부터 특근부터 하지 않기로 했다.

현대자동차는 국내 7개 공장 중 6곳의 주말 특근과 잔업 중단 등으로 인해 자동차 2만대 정도의 생산이 줄면서 국내 공장의 한달 평균 생산량(15만대 가량)이 10% 안팎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기아자동차도 중대형 라인을 위주로 특근과 잔업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감산에 돌입했다.

11월부터 소하리공장(카니발), 화성공장(소렌토), 서산공장(모하비), 광주공장(스포티지) 등 중대형 및 RV 차량 생산라인의 잔업과 특근을 전면 중단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한달에 내수 3만대, 수출 7만대 안팎을 생산하던 것에서 5000대 가량의 감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인기를 끌고 있는 서산공장의 모닝, 소하리공장의 프라이드, 화성공장의 포르테, 로체, 오피러스는 잔업과 특근을 계속하는 가운데 광주공장의 소울, 봉고트럭은 특근을 중단하고 잔업만 유지하기로 했다.

GM대우자동차는 12월1일부터 토스카와 윈스툼을 생산하고 있는 부평 2공장 가동을 2009년 1월4일까지 중단했다.

또 12월22일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8일간 중소형 라인인 부평 1공장과 군산, 창원 등 모든 공장 가동도 멈추기로 했다.

GM대우는 자동차 판매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2009년 1-2월, 최악의 경우 3월까지도 일부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도 12월1일부터 생산체제를 주 5일 근무에서 주 4일 생산체제로 바꿔 생산량 조절(감산)에 들어갔다.

또 12월24일부터 2009년 1월1일까지 생산라인 조정을 명분으로 조업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르노삼성자동차의 감산 계획은 11월 수출 실적이 5301대로 10월 8854대에 비해 40.2% 급감했고, 내수 판매도 6001대로 11월 7431대와 비교해 19.2% 줄어드는 등 수출 주문량 감소와 내수판매 부진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수년간 매각설에 시달렸던 쌍용자동차도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의 판매실적이 부진해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생산라인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생산직을 전환배치하기로 노사 합의했다.

또 잉여인력 350여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유급 휴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2/01>